

지역 메아리

김제시보건소,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임신부출산준비교실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관내 결혼이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출산에 따른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족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임신부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출산준비교실 장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교육장이며 4월 2, 9, 16, 23일 매주 월요일로 총 4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국제모유수유 전문 강사 및 만물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지며 ▷모유수유 자세 및 방법 ▷아기용품 만들기▷신생아 목욕 및 마사지 ▷임신 중 흡연예방 및 영양, 구강관리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다문화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혼이민 이주여성이 임신 전·후에 겪게 되는 생활들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으로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자로서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11월까지
튼튼쑥쑥 건강간식사업 추진

김제시보건소(김형희)는 건강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과일을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김제시지역아동센터 4곳을 선정하여 '튼튼쑥쑥 건강간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튼튼쑥쑥 건강간식사업'은 매일 아동·청소년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필수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등 다채로운 영양교육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과일을 이용한 조리실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철 과일과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간식사업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과일을 접하고 스스로 식습관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완주군, 국비 1억8000만원 지원... 월세 1명당 최대 30만원 한도

완주군에 입주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기숙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완주군은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총 20건이 응모됐으며, 완주군을 포함해 최종 11건이 선정됐다.

완주군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면서 군비 6000만원을 포함해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여야 하며, 그 중 신규 채용자(재용 6개월 이내)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완주군은 올해 1월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완주 일

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70명 이상에게 임차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모바일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어린이 맘껏 뛰노는 '놀토피아' 개장

완주군, 25종 스포츠 시설 구비

완주군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토피아(어린이모험 테마마을)'가 개장한다.

29일 완주군은 고산면 소항리 일원에 실내형 어린이 모험놀이시설인 놀토피아를 3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모험테마마을 놀토피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벽등반을 테마로 하는 모험 놀이시설로 클라이밍을 비롯해 스크린 테니스, 스크린 골프, 미니풋살장, 농구슈팅, 다트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25종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구비됐다.

완주군은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6년 12월에 착공, 건축면적 1,580㎡ 규모로 조성했다.

놀토피아는 특히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클라이밍에 대표 글로벌 기업인 핀토피아사의 제품을 설치해 개장 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까지 문의를 해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놀토피아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완주군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토피아(어린이모험 테마마을)'가 개장한다.

시 완주군이 놀이문화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완주군 3대 비전 중 하나인 농토피아와 연계된 명칭을 사용, 어린이 놀이문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완주 어린이 모험테마마을은 국내의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다"며 "완주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시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시설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63-29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문화재 현안사업 밀착행정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추천)는 지난 28일 김중진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각종 문화재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지원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밀착행정으로 국비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문화재청장 면담은 '김제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사업', 새민금의 랜드마크 유적지로 거듭날 '길곳봉수

대 복원사업',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임평집강소 옛부지확보' 등 문화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추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직접선봉에 나서 건의하는 등, 김제시장 부재에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

김중진 문화재청장은 김제 진봉면이 고향으로 공직생활을 김제에서 처음

시작하여 온화한 성품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청내의 각종요지를 두루거처 청장의 위치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지난 1월에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현장을 두루 방문,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애항심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건의된 여러 사업들은 하나하나 실무자들과 상의하며 예산확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문화재관련 사업에 탄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별한 날을 선물해 드려요'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 위로·행복나눔 실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경준, 이하 협의체) 및 복지기동대(이하 기동대) 위원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 드리는 '내 생애 최고의 날' Happy-Day 사업을 실시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사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여 위로와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법정동별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3명씩 추천받아 5개 마을로 나눠서 월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어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 최정복님의 지정기탁금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안례와 시 낭송, 선물전달식, 포토타임, 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의체는 소

박하게 한끼를 해결하시던 어르신들을 위해 푸짐하게 마련한 상에 떡케이크, 잡채, 통닭, 불고기전골, 계절과일 등을 배곡하게 준비했으며, 복지동장과 복지기동대원은 어르신들의 인솔 및 귀가길을 책임져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최고의 날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참석하신 한 어르신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밖을 잘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외출하여 맛있는 점심도 먹고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아 정말 행복하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평생을 열심히 사신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둔산지역 짝궁숲 탄생

완주군 둔산지역에 짝궁숲이 탄생했다. 29일 완주군은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과 전북생명의숲 주관으로 완주군 산업단지사무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둔산지역 짝궁숲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둔산 주민, 어린이, 기업인, 숲해설가 등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둔산공원에 꽃바구니 편지와 철쭉을 심었다.

완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둔산공원의 작은 자투리땅에 산소길, 짝궁숲, 어린이 꽃바구니 분양 등 세 가지 분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원가꾸기 불씨를 점화한다는 계획이다.

짝궁숲 조성은 ▲어린이와 공원이 친구가 되다 ▲주민과 공원이 친구가

되다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숲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주민참여 생태산단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한 전북생명의숲과 현대자동차는 둔산공원을 가꾸는 주체와 실행자가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가로수, 울타리, 산단 내 도로변 숲을 주민, 기업과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참여 민주주의 정책의 실현의 주체가 바로 지역 주민이다"며 "주민참여 짝궁숲 조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디자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자발적 협의체도 내실있게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